

“안녕, 잘 가요” 손흥민·토티넘, 뜨거운 추억 남기고 출국

일주일 프리시즌 방한 마쳐...팬들 총 11만여 명 찾아와
출국장에 수백 명 찾아...손흥민, 팬 서비스만 30분 이상
케인 “한국에서 보낸 프리시즌, 잊지 못할 것” 감사함 전해

“안녕, 잘 가요”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티넘이 일주일 동안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고 한국 프리시즌 일정을 마친 뒤, 출국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을 비롯한 토티넘 선수단은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영국 런던으로 돌아갔다.
지난 10일 팬들의 열렬한 환대를 받으며 입국한 토티넘은 이날도 인산인해를 이룬 팬들의 따뜻한 배움을 받으며 출국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EPL) 역대 최초 아시아 선수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도 선수단과 함께 비행기에 올랐다.
선글라스를 착용한 손흥민은 팬들의 사진, 사인 요청에 밝은 표정으로 응하며 보답했다.
팬들은 콘테 감독, 손흥민, 해리 케인 등 선수들의 이름을 부르며 “안녕, 잘 가요”라며 작별 인사를 건넸다. 선수들은 일주일 동안 큰 성원을 보낸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며 사인과 사진 촬영에 임했다.

방한 동안 선수단을 지원한 한국 스태프와 악수와 포옹을 나누기도 했다. 손흥민 역시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고마움을 전했다.
손흥민은 12시30분쯤 공항에 모습을 드러내 출국 수속을 밟은 이후, 30분 이상 ‘월드클래스다운’ 팬 서비스를 선보였다. 마지막으로 출국장 문을 통과했다.
토티넘은 방한 동안 두 차례 프리시즌 친선 경기를 치렀다. 13일 K리그 울스타 ‘팀K리그’와 대결했고, 16일 스페인 명문 세비야를 상대했다. ‘팀K리그’전에선 손흥민과 단짝 해리 케인이 나란히 멀티골을 기록하며 6-3으로 승리했고, 세비야를 상대로는 1-1로 비겼다. 손흥민의 도움을 케인이 골로 연결해 둘의 찰떡같은 공감을 안방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팬들도 화답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K리그’전에 6만4100명,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세비야전에는 4만3998명이 찾았다.
여기에 두 차례 오픈 트레이닝을 지켜본

6000여명까지 총 11만 여명이 토티넘 선수단에 성원을 보내며 함께 호흡했다.
선수단은 14일 서울 중구 장충동의 한 식당에서 손흥민이 마련한 소고기 회식 자리에 참석해 ‘한국의 맛’을 느끼기도 했다.
간판 공격수 케인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에서 보낸 프리시즌을 잊지 못할 것이다. 믿을 수 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준 한국 팬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고 했다.
루카스 모우라는 SNS에 한글로 “감사합니다. 한국 팬들 덕분에 한국에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조금 더 알게 되고 문화를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팬들의 믿지 못할 성원, 응원이 너무 놀라웠다. 덕분에 먼 나라 또는 제가 사는 먼 곳에서 이렇게 많은 응원을 받고 있다는 것은 저한테도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했다.
세비야전에서 상대와 신경전 중 손흥민을 보호해 눈길을 끈 이적생 히사롤리송은 “여러분들의 응원에 감사하다. 한국을 사랑한다”고 했다.
손흥민도 세비야전이 끝나고 “감사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사랑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감사했다. 일주일 동안 행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쿠팡플레이 초청 시리즈를 마친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티넘 홉스퍼의 해리 케인이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SNS에는 “사랑합니다. 일주일 동안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최고”라고 썼다.
토티넘은 런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레인저스FC(스코틀랜드), AS로마(이탈리아)와

프리시즌 경기를 통해 다음달 EPL 개막을 준비한다. 2022-2023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도 출전한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브 비수마와 프레이저 포스터는 격리를 마치고, 개별적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4연패 도전’ 벤틀호, 동아시아컵 위해 일본으로 출국

김영권, 위장염 증세로 소집 불참 ‘상태 보고 합류 시점 결정’...20일 중국·24일 홍콩·27일 일본과 대결



한국 축구대표팀이 동아시아컵 4회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파울루 벤틀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7일 오전 2022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 출전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했다.

11월 2022 카타르월드컵을 앞두고 여러 선수를 점검하고, 팀 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과정으로 삼았다.
벤틀 감독은 K리그 선수들을 중심으로 엔트리 26명을 구성했다. 권경원(감바 오사카)만 유일한 해외파다.
국제축구연맹(FIFA) A매치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차출을 위해선 소속팀의 허락이 필요하다. 때문에 손흥민(토티넘), 황희찬(울버햄튼) 등 유럽과 선수들은 합류하지 않았다.
당초 중국 슈퍼리그에서 활약 중인 손준호(산둥 타이산)를 엔트리에 포함했지만 무릎 부상으로 낙마했다. 이영재(김천)가 대체 발탁됐다.
또 생애 첫 A대표팀 승선으로 기대감에 부풀었던 이상민(서울)이 코로나19 감염으로 빠져 대신 박지수(김천)가 포함됐다. 현역 군인인 박지수는 해외여행 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벤틀호에 합류한다.
이날 오전에는 중앙 수비수 김영권(울산)이

위장염 증세로 출국 소집에 불참했다.
대한축구협회는 “김영권이 전날 소속팀의 경기 종료 후, 복통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위장염 증세로 휴식이 필요해 금일 대표팀 소집에 불참했다”며 “선수의 상태를 지속해서 확인해 향후 합류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고영준(포항), 강성진(이상 서울), 김주성(김천), 이기혁(수원FC)은 생애 처음으로 A대표팀에 발탁됐다.
한국은 2003년 출범한 동아시아컵에서 통산 5차례 정상에 오른 최다 우승팀이다. 특히 2015년 대회부터 3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4연패에 도전한다.
이번 대회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홍콩이 참가한다.
한국은 20일 중국을 시작으로 24일 홍콩, 27일 일본을 차례로 상대한다. 경기는 모두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시의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벤틀 감독은 선수 명단을 발표하면서 “상대가 어떤 팀이나, 상대팀 선수가 어떤 수준이나 상관없이 우리는 카타르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이번 대회에 참가한다”고 했다.



투수로 깜짝 변신한 포수 김민식의 ‘진짜’ 팬서비스

SSG 랜더스 포수 김민식이 잠시 투수로 변신했다. 포지션 파괴의 무대는 무려 울스타전, 그것도 연장전이었다.
3년 만의 프로야구 울스타전이 열린 16일 잠실구장. 9회 정규이닝을 3-3으로 마친 나훈 울스타(LG·키움·NC·KIA·한화)와 드림 울스타(KT·두산·삼성·SSG·롯데)는 승부를 가리기 위해 10회초 승부차기를 시작했다.
먼저 수비에 나선 드림의 투수가 바로 김민식이었다. 엔트리에 남아있던 유일한 투수인 ‘골판양’ 오승환(삼성)이 컨디션 난조로 등판이 힘들자 김민식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
김민식은 1985년 김성한, 2018년 강백호에 이어 울스타전 마운드를 밟은 세 번째 야수로 이름을 남겼다.

오승환의 등장 음악을 통해 등판의 시작을 알린 김민식은 무사 1.2루 승부차기에서 첫 타자 김해성에게 우전 안타를 맞았다.
하지만 드림 우익수 최지훈(SSG)이 정확한 송구로 홈으로 뛰던 2루 주자 최형우(KIA)를 잡아내 실점을 막았다.
계속된 1사 1.2루에서 김민식은 류지혁(KIA)을 상대했다. 이번에도 야수들의 도움을 받았다. 류지혁의 안타성 타구는 몸을 날린 2루수 황재균(KT)의 글러브 끝에 걸렸다.
순식간에 아웃 카운트 2개를 잡자 드림의 응원석은 김민식을 외치는 목소리로 뒤덮였다.
모두가 ‘설마’하는 순간, 정은원(한화)의 한 방이 터졌다. 2사 2.3루에서 나온 정은원은 김민식의 높은 직구를 건어올려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스리런포로 연결했다.
초특급 마무리 투수로 쉽지 않은 무사 1.2루 무실점에 아웃 카운트 하나를 남겨뒀던 김민식은 아쉬운 듯 미소를 지었다. 김민식의 팬서비스 후 드림의 10회말 공격이 무득점으로 끝나면서 경기는 그대로 막을 내렸다.
드림 소속의 데이비드 뷰케넨(삼성)은 자신들과 달리 나눔이 10회 수비 때 전문 마무리 투수인 고우석(LG)을 등판시키자 더그아웃을 박차고 나와 장난 섞인 항의를 하기도 했다.
이날 김민식이 던진 공은 총 13개. 최고 구속은 135km가 찍혔다. 야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꽤 빠른 속도다. 투구 분석포에 따르면 김민식은 커브와 슬라이더도 1개씩 던졌다.
경기가 끝난 뒤에도 여운은 이어졌다. 팬들은 시상식을 위해 마운드에 모인 이들 중 유독 김민식의 이름을 부르며 격려했다.

전남우수협회 서희주, 2022 버밍햄 월드게임 동메달...부활의 신호탄

2019년 세계우수선수권 이후 3년만에 국제대회 개최...무릎부상 이후 화려한 복귀

우수 여자간판 스타이자 미녀겸객 서희주(전라남도우수협회)가 “2022 버밍햄 월드게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전남우수협회(윤병용 회장)는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미국 버밍햄에서 열린 2022년 버밍햄 월드게임에서 전라남도우수협회 소속 서희주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서희주는 2019년 세계우수선수권대회 이후 코로나로 인해 3년만에 개최된 국제대회

에 참가하였다. 월드게임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위부터 6위권 선수들만 참가할 수 있는 대회이며, 서희주 선수는 검술·장술전능(두개 중목 합산성적)에 참가해 베트남, 캐나다에 이어 종합점수 18.32를 획득, 동메달을 목에 걸며, 무릎부상으로 인해 힘든시기를 보낸 서희주는 부활의 신호탄을 쏘았다.
작년 6월 전방심자인데 재수술을 하고 성공적인 재활 후 복귀한 서희주는 “2022년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3년만에 국제대회에서 메

달을 획득해 너무 기쁘지만,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더 잘 준비해서 내년 아시안게임에서 꼭 금메달을 획득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전라남도우수협회 윤병용 회장은 “코로나 19 이후로 오랜만에 열린 국제대회에서 우리도 선수가 메달을 획득해 매우 자랑스럽다”며 “내년에 열린 아시안게임에서는 애국가 울려 퍼질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김하성, 5경기 연속 안타...7월 타율 0.350

애리조나와 홈경기서 4타수 1안타, 샌디에이고 4-3 승리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레스)이 7월 들어 뜨거운 타격감을 유지하고 있다.
5경기 연속 안타 행진과 함께 7월 월간 타율 0.350을 기록하며 공격력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
김하성은 17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펫코 파크에서 열린 애리조

나 다이아몬드백스와 2022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홈경기에 유격수 겸 6번 타자로 나서 4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타율은 0.243으로 유지됐지만 지난 13일 콜로라도 로키스와 원정경기 이후 5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했다.
김하성의 첫 타석은 사실상 안타나 다름없

었지만 상대 호수비에 막혔다. 2회말 날카로운 땅볼 타구를 날렸지만 애리조나 유격수 제랄도 페르도모의 몸을 던지는 호수비에 간발의 차로 아웃됐다.
5회말 선두타자로 나선 두 번째 타석에서 3볼 2스트라이크까지 가는 풀카운트 점전을 벌였지만 1루수 파울 플라이트로 몰러낸 김하성은 팀이 6회말에 3점을 뽑았을 때 안타를 때려냈다.
루크 보이트의 3점 홈런으로 샌디에이고가 4-3으로 역전한 가운데 김하성은 상대 투수 노에 라미레스의 초구를 받아쳐 좌전 안타를 만들어냈다. 이후 김하성은 2루까지 홈치며 시

즌 5번째 도루까지 성공시켰다.
하지만 김하성은 호르헤 알파로의 2루타로 만들어진 8회말 1사 2루 상황에서 다시 한번 1루수 파울 플라이트에 그지며 타점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이날 샌디에이고는 0-3으로 뒤진 5회말 매튜 배튼의 적시 2루타로 1점을 쏘아간 뒤 6회말 보이트의 역전 결승 3점 홈런으로 역전에 성공했다. 9회초 마무리 테일러 로저스는 카슨 켈리와 조시 로하스를 연속 삼진으로 잡아내는 등 세 타자를 완벽하게 막아내며 1점차 승리를 지켰다.
뉴스